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 전북 학생 저자 출간 기념회

학생들의 표현 능력 '쑥쑥'

학생 작가·학부모
지도교사 등 참여
62팀 발간 도서 바탕
글쓰기 경험 공유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전북학생 저자 출간 기념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전북학생 저자 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간기념회는 학생 작가, 학부모, 지도교사 등 170명 참여해 교육학습공동체 사제동행 책쓰기 운영 62팀이 발간한 도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쓰기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학부모·운영교사들과 나눔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1부 '나눔'에서는 영상으로 만나는 학생 작가, 활동 사례 나눔으로 '우리 책, 이렇게 만들었어요'를 진행했다. 부안동초, 전주자연초, 전주지곡초, 상관중, 양현고 학생과 지도교

사가 사례 나눔을 통해 1년의 책쓰기 활동 시간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2부는 책쓰기 운영교사들의 지도로 학생 작가들이 만든 도서가 전시된

공간에서 발간한 도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교육학습공동체 사제동행 책쓰기 운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표현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글쓰기 교육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일 익산시 덕기동에 위치한 창혜원을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설 명절을 맞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애인 복지·존중, 지속 필요 영역”

서거석 교육감, 설 맞아 창혜원 찾아 생필품 전달

서거석 교육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창혜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익산 덕기동에 위치한 창혜원은 지적장애인가구시설로 작업치료·예술치료·경제교육·자치회의·가족상담사교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사회에 장애

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와 존중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이자 가치"라면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7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쌀, 화장지, 누룽지, 김 등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올 첫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안내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6개 권역으로 시험장 확대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에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부터는 응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6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1권역은 전주·완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은 익산, 4권역은 정읍·고창·부안, 5권역은 남원·순창·임실, 6권역은 진안·장수·무주다.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 등이다.

응시원서 교부기간은 오는 13~19일까지 5일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진행된다. 다만, 현장접수는 초졸 응시자 및 장애 응시자의 경우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방문 접수할 수 있지만, 중·고졸 응시자는 6개 권역별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 접수처에서 해야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원서에 응시 희망지역(6개 권역 중 택 1)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귀국자 학력인정자 및 재소시설 응시자는 도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 방문 접수 가능하다.

이어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 홈페이지(https://kged.go.kr)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접수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

수는 1일 단축된 16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 시 최종학력증명서, 증명사진 2매,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험장소는 3월 22일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은 4월 6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5월 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시기 교원인사과장은 "6개 권역별 검정고시 시험장 운영은 응시자의 시험장 접근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평생교육 실현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본청에서 운영하는 시험운영전문인력풀을 시험권역으로 분산 배치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검정고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학년도 유·초등교사 신규임용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종합격자는 총 73명으로, 유치원 18명(일반 17명·장애 1명), 초등 39명(일반 38명·장애 1명), 특수유치원 4명, 특수초등 12명이다.

개별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오는 8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cerecruit.jb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하다.

신규 임용시험은 총 2차로 나눠 진행, 제1차 시험(100점)은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제2차 시험(100점)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초등은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별도)으로 치러졌다. 이후 제1차 시험 성적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월 중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 현장 적응을 위한 임용 전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시기 교원인사과장은 "최종합격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면서 "신규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함께 역량있는 교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임용

최성민 변호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최성민 변호사를 교권전담변호사로 임용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교권전담변호사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처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연구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군산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건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권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최 변호사의 임기는 이달 5일부터 2년이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전담변호사 임용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이 이뤄져 도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최성민 변호사(사진 오른쪽)를 교권전담변호사로 임용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장은성 기자

3월 1일자 중등교사 정기인사 발표

수석교사 임용·재임용 13명 등 총 941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2024학년도 3월 1일자 중등교사 인사를 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총 941명 규모로 중등 수석교사 임용 및 재임용 13명, 시·군간 전보 681명, 국립학교

전·출입 37명, 정년퇴직 54명, 명예퇴직 44명 등이다.

중등교사 인사는 1차 지역 발표, 2차 학교 발표, 3차 신규교사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2차 발표와 3차 발표는 각각 오는 8일과 16일 예정돼 있다.

한편 초등교사 및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오는 6일 단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부터는 경력교사 특정 지역(학교) 집중 현상 개선을 위해 신규교사 및 정년내기간제교사를 지역 및 학교별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경력별 균형있는 교원 배치를 통해 고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가 서로 협력하며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다./장은성 기자

전주대, 친환경에너지 전력변환기술 동계 오픈캠퍼스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주최하고 지역 대학(원)생 및 도내 기업 재직자가 참여하는 2024년 전력변환기술 동계 오픈캠퍼스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2004년 처음 실시된 오픈 캠퍼스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주관기관)와 전주대·군산대·전북대가 참여하는 전북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의 전력변환기술 실무 특화교육이다.

이 교육은 전주대 산학협력단·LINC3.0사업단(단장 김상진), 전북지역 혁신플랫폼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단장 이덕진)이 공동 주최, 도내 전력변환 관련 5개 기업 8명의 재직자, 대학(원)생 9명, 교수 3명 등 3일 연속 60명이 참여했다.



전주대학교가 주최하고 지역 대학(원)생 및 도내 기업 재직자가 참여하는 2024년 전력변환기술 동계 오픈캠퍼스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수송기기 전력변환장치 디지털제어를 위한 32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TMS320F280049) 이용한 실무역량 강화 특화교육으로, (주)유아티클로벌 국운상 대표의 강의로 이뤄졌다.

박진배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력변환기술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 정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장은성 기자

전북대, 미래 첨단 직업 발굴 대학생·초중고 캠프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역혁신사업(RIS) 일환으로 미래 첨단 직업 발굴 대학생·초중고 캠프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3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과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북대 등 전북지역 10개 참여대학 재학생과 초·중·고교생을 대동·멘토로 연결해 미래 첨단 융합전공 분야 관련 직업탐색 기회를 가졌다.

캠프 과정의 주요 내용은 △미래 첨단기술 분야 특강과 체험 △미래 첨단기술 분야 선정과 진로 분석 △진로, 학습, 생활 전략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과 표현 교육 △팀별 포트폴리오 작성과 활용 △프로젝트 진행에 의한 작은 발표회 등이다.

/장은성 기자

작물보호제 연구 최신 정보 교환

전북대서 해충방제연구회 정기총회·연구결과 발표회

지난 1일 전북대학교에서 2024년 제11회 해충방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병해충 관리 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이 식물화학연구센터와 공동 주관했다.

이에 따르면 해충방제연구회는 작물보호제 연구에 관한 최신 정보 교환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날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박사는 '산림병해충 발생 동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소나무재선충과 수목해충의 발생 동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KGC 인삼공사 기초표준연구소 홍태균 박사는 인삼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 종류와 등록 시합법 개선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전북대 박민구 교수(생물환경화학)는 '검역적 소독기술의 개발



지난 1일 전북대학교에서 2024년 제11회 해충방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발표에서 식물검역용 훈증소독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내 현장에서 해충 방제에 적용하기 위한 융복합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장인 추병길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해충 방제 분야 연구자들과 전문 기업인들이 연구성과 교류를 통해 일으킨 시너지 효과로 국내 병해충 방제제 개발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며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도 병해충 검역 및 관리 분야 우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장은성 기자